

나주에 전국 첫 '청년 0원 임대아파트' 생긴다

시, 9월 18~45세 대상 신청자 30호 모집...입주자는 관리비만 부담 오늘 부영주택과 임대주택·보증금 지원 협약...최장 4년 거주 보장

나주시가 지역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대아파트를 아예 공짜로 빌려주는 무상 주거사업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한다.

지난 5월 화순군이 청년·신혼부부 유입을 위해 내건 '월 1만원 임대아파트'가 10대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후 나주시도 파격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 중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자 30호를 모집한다.

나주지역 사업장에 취업한 18~45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 소득 150%인 월 312만원 이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사업 대상자의 나주 전입신고 여부 등 세부적인 조건과 기준은 모집 공고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지는 나주 원도심인 송월동·삼영동에 있는 부영1·2차 아파트이다. 2년 거주가 보장되며 최장 4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나주시는 지역에 있는 유일한 임대아파트인 부영1·2차 49㎡(19평) 이하 30세대를 청년에게 무료로 빌려줄 예정이다.

나주시는 20일 부영주택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청년 임대주택·임대 보증금 지원' 협약을 맺는다.

지난 1998년 7월 처음 입주민을 받은 나주 부영1차아파트는 지난 1월 기준 10%(994세대 중 104세대)가 공실인 상태다.

나주시는 지난 12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올해 30호를 시작으로 오

는 2025년까지 1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1호당 임대보증금 4800만원(평균)과 수리·유지비 200만원 등 5000만원을 청년 대신 부담한다. 청년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면 된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상 주거복지 계획을 밝혔다."

나주시는 빛가람역신도시 조성 효과로 지난 2014년부터 연간 수천 명에 달하는 순유입이 이어졌지만, 지난해 순유입 인구는 전년의 5분의 1 수준인 398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나주를 떠난 1만4335명 가운데 28.3%에 달하는 인구는 전출 사유를 '집 때문'이라고 답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 청년이 지역에 머무르기 위한 여건으로 일자리와 주거가 가장 많이 꼽힌다"며 "나주시 청년정책협의회 등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며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4800만원에 달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49㎡형)을 대신 내주는 '0원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오는 9월 중 모집한다. 나주시 삼영동 부영 1차 전경. (나주시 제공)

올 초 '산불 피해' 함평군, 내년부터 본격 복구



함평군이 최근 개최한 '산불 피해지 복구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임야 복구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축구장 900개 크기 641.45ha 소실...군, 경관개선 의견수렴 보고회

올해 4월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900개 크기 산림을 잃은 함평군이 피해 복구에 나선다.

함평군은 최근 군청에서 '산불 피해지 복구방안·경관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보고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이상의 함평군수와 윤영광 함평군의회 의장, 함평군산림조합장, 함평축협장, 주민, 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3일 함평군 신광면·대동면 일원에 불이 나 이를 동안 641.45ha에 달하는 산림이 불탔다.

피해 면적은 축구장 898개에 달하는 규모로, 이 일대 임야(1만8203ha)의 3.5%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간 산불로 떨어진·고사리·헛개·두충 등 임산물 피해를 보고 공장 4개 동, 축사 1개 동, 온실 3개 동도 불을 피하지 못했다.

함평군은 피해 지역에 숲을 조성하고 임도 조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등 사방사업을 벌이기 위해 종합 복원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오는 11월까지 복구 방안과 경관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복구에 들어간다.

계획수립 용역은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맡았다.

인공 조림 대상 면적은 전체 피해 면적의 37%에 해당하는 237.27ha이다.

보고회에서는 용역 착수보고회를 한 뒤 다양한 의

견이 제시됐다. 산불 피해지를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지역민 소득을 창출하고, 임야 내 불에 탄 폐목을 활용하는 등 의견이 나왔다.

함평군은 참석자들이 낸 의견을 검토한 뒤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천성은 함평군 산림공원과장은 "오늘 보고회는 기본계획의 방향 정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며 "관공산 임 등 분야별 가능한 사업이 기본계획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불에 탄 나무를 활용해 톱밥 등 축산농가에 필요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산불 피해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군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군, 112억 들인 '청소년수련관' 개관

지상 3층 규모...방과후아카데미 교실·연회장 등 갖춰

화순군에 청소년들이 재능과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전용 문화활동 공간이 생겼다.

화순군은 최근 화순읍 교리 212번지 일원에서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문화의집 밴드 교실에서 활동한 동아리 '두루아트 앙상블'이 식전 공연을 펼치며 화순군 청소년수련관의 준공을 축하했다.

화순군 청소년수련관은 국·도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112억원을 투입, 지상 3층, 연면적 2688㎡ 규모로 건립됐다.

수련관 1층은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 실내 집회장을 비롯해 연회장(파티룸), 코인노래방, 인터넷존, 휴게실 등의 공간을 갖췄다.

2층에는 청소년들이 맘껏 뛰어놀며 활동할 수 있는 전용 체육활동장과 요리체험실, 댄스연습실, 밴드실, 동아리방 등 청소년 전용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했다.

3층은 회의실, 모래 치료실, 심리상담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갖춰져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메타버스로 나주관광 홍보 나주시청 공무원 '우수논문상'

나주시청 직원들의 시정 연구모임인 '뜻세움' 뉴노멀(New Normal) 팀이 최근 제주대학교 산학융합원 첨단캠퍼스에서 열린 '2023년 한국컴퓨터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컴퓨터정보학회는 6600명이 넘는 학계·산업계·연구소·유관기관 관계자를 회원으로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학회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인증, 학술대회, 학회지 발간과 산업계와 연계한 산학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학술의 성과를 산업에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뜻세움은 시민·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함께 연구과제를 선정해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시정연구모임 동아리다.

지난 2011년 발족해 올해로 13번째 운영되고 있다. 뉴노멀팀은 이번 대회에서 '메타버스 나주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홍보마케팅 활성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뉴노멀팀은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홍보실, 건축허가과, 감사실 소속 직원 5명으로 구성됐다.

팀 리더인 유지영 팀장은 "관광산업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부상하는) 시대에 언택트(비접촉 소비시대)에서 온택트(온라인을 통한 소통) 형식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나주형 체류관광 육성 정책 모형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기재부, 나주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원스톱 수출119' 개최...기업 8곳 참여 환이억금 납부유예 등 건의

기획재정부가 나주시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수주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나주시는 나주혁신산업단지 한국전기설비시험 연구원에서 기재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이 '제4차 원스톱 수출119'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 지원단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산업단지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건의사항 해소와 제도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 수출119를 갖고 있다.

간담회에는 기재부 최한경 원스톱 수출·수주지원관, 이혜선 수주인프라지원팀장, 전라남도 신원군 국제협력관국장, 강상우 에너지산업국장, 나주시 강영구 부시장, 나상인 미래전략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백인기 광주전남지원단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연옥 전남지역본부장 등 각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또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태양광발전시스템, 전기·전력 기자재 등 나주시 관내 수출 유망기업 대표·임직원들이 참여해 수출 경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여기업(주수출품목)은 나주배원에농협협동

조합(배·배즙), ㈜해농(김), 호남버섯영농조합법인(팽이버섯), 영산흥어(주)(홍어·홍어콜라겐 제품), ㈜스위코진광(특고압개폐기·차단기), (주)유에너지(개폐식 태양광발전시스템), JEA Limited Uzbekistan(전기·그린수소 기자재), 이화산업전력(주)(전기 수배전반) 등 8곳이다.

이들 기업은 환원보증보험에 따른 환이억금 납부유예, 분납 기간 확대, 해외 정부기관 입찰 참가, 국내 기업 해외투자 현지법인 지원 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수출·수주 지원을 요청했다.

배 수출 활성화를 위한 검역 제도 개선, 버섯 원가 경쟁력 확보 지원 방안 등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기재부 지원단은 수출기업 애로·건의사항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영구 부시장은 "우리 지역 수출 유망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입주업체 현장 방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은 물론 미래산업 변화에 발맞춘 일자리 창출, 근로여건 개선, 경영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나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강진군, 장기 민원 해결 '동분서주'

전문가 구성 민원소통위 출범...주민 권익 침해 등 해소 노력

강진군민원소통위원회(이하 민소위)가 지난달 접수된 작전면 이남리 지적불부합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작전면 이남리와 병영면 도동리 사이 금강천 일대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40년을 넘게 끌여온 강진의 대표적 장기 민원이다.

1976년 금강천 직강공사 후 경지정리 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미준공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현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제3자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처리하는 민소위는 민원 확인을 위해 직접 금강천 현장에 나가 주민과 면담하고, 비슷한 민원 해결사례가 있는 장성군청을 찾아 조언을 들었다.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4일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민소위는 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교수, 변호사, 법부사, 전직 공무원, 농어촌공무원 등 토지 행

정 관련 전문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7월 중 민원을 심의할 계획이다.

민소위는 예민한 지역 현안이나 예상되는 집단 갈등 민원 등 일반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행정조치과는 별도로 처리하는 기구이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신설됐다.

지난 5월 전국 공모를 통해 개방형 직위로 민원소통위원장을 채용하고 올해 초부터 공개모집과 위원 추천위원회 심사과정을 통해 53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정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 권익 침해,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집단민원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 폭염 취약계층 주거시설 수리

OK 생활민원센터, 방충망·화장실 배관 시설 등 집중 관리

강진군 'OK 생활민원센터'는 폭염에 대비해 어르신·취약계층 주택시설물 등을 점검 수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민원센터는 지난달부터 집중적으로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방충망 수리, 에어컨 필터·선풍기 청소, 화장실 및 싱크대 배관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에어컨과 선풍기 청소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을 얻었다고 군은 전했다.

6월 한 달간 수리한 79건 중 30건이 방충망으로

집계됐다.

생활민원센터는 지난 1월 강진군, 지역자활센터, 강진탐진로타리클럽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이날 현재 347건의 소규모 집수리, 배관시설, 전기시설, 기타 불편 사항 등을 처리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37%로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촘촘한 생활복지서비스를 민관이 함께 제공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주거환경을 즉시 해소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